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후 3시

장 소 : 서울청소년수련관

공동주관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서울청소년수련관

초대의 글

청소년활동의 비중이 약해지고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인식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출범한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이제 두 번째의 회합을 준비하여 한발 더 내딛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청소년활동의 비극적 문제를 보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고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만들어야 할 책임감이 더욱 커졌음을 상기합니다.

최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한편으로 활동의 발전과 규제라는 기로에 서 있기에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그동안 청소년활동의 기능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움직이지 않았던 소극성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이 시간 이후 청소년활동의 강화와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한국청소년활동학회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이끄는 일에 힘쓰고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22.

한국청소년활동학회장

Program 내용

- ▶ 일 시 : 2013년 11월 22일(금) 오후 3시
- ▶ 장 소 : 서울청소년수련관(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 ▶ 공동주관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서울청소년수련관

시간	구분	프로그램
14:30~15:00		등 록
15:00~15:1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권일남 회장(한국청소년활동학회)
15:10~15:40	주제발표	좌장 :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김영득(은평청소년수련관) ■ 토론 : 김종국(송파청소년수련관)
15:50~16:2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백준중(한국스카우트연맹) ■ 토론 : 김용(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16:20~16:30		휴 식
16:30~17:0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재조명” 손보라(용산청소년수련관) ■ 토론 : 김태주(강북청소년수련관)
17:00~17:3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현장 지식의 체계화 방안” 김정율(광진청소년수련관)
17:30~18:00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 [주제발표]	
청소년 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1
김 영 득 (은평청소년수련관)	
» [토론]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19
김 종 국 (송파청소년수련관)	
» [주제발표]	
청소년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9
백 준 중 (한국스카우트연맹)	
» [토론]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청소년단체	41
김 용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 [주제발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재조명	55
손 보 라 (용산청소년수련관)	
» [토론]	
청소년활동의 재조명	67
김 태 주 (강북청소년수련관)	
» [주제발표]	
청소년지도현장 지식의 체계화 방안	73
김 정 율 (광진청소년수련관)	
» 정관	101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임원	109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1.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김 영 득 (은평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김 영 득 (은평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미디어센터, 국제교류센터, 성문화센터, 직업체험센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유스호스텔 등으로 나눌 수 있겠고 그 외 다양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논하기에는 발제자 능력의 한계도 있을 뿐 아니라 심도 있는 내용의 전달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며 더불어서 바람직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시설을 조망해야만 되는지를 학술적 측면보다는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을 안고 갈등과 문제를 함께 풀어야하는 동역자로서 가슴을 열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청소년시설의 설립과 취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아도 수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혹은 정책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익히다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는 굳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자제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청소년수련관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사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

자연권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활권 시설의 경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다.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 전후에 건립된 수련관의 경우 건평이 약 4000평 내외의 대지 1500평 내외이며 총 건축예산은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 한복판에 그 정도의 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곽에 건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활권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청소년시설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시설구조는 수련관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강당, 프로그램실 등으로 몇개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수련관들이 동일한 시설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수련관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획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몇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한지체험관, 직업체험시설, 요리 전문체험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 지역특색과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시설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는 청소년시설을 건축하기 앞서 충분한 지역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시설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노력과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수련관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간접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3-4층 높이의 수영장과 유리외벽 등은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과도한 관리비의 부담으로 수련관 운영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등장했으며 규격화된 프로그램실은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극장식으로 된 강당 또한 그 활용 가치면에서 체육관과 겹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처음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청소년들에게 맞는 맞춤형 시설이 되었으며 그 활용도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행정기관의 과도한 지도 감독이 민간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행정기관이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을 민간법인이 위탁운영하면서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정시스템과 을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자칫 과도한 갑이 을에 대한 통제와 규제는 행정과 민간의 Partnership이 아니라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여 행정기관의 요구에 맞는 사업의 추진, 결과물과 실적 중심의 사업의 추진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유연성과 창의성이 결핍되어 새로운 관변단체의 형태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행정기관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과 사업의 추진은 청소년 사업의 Knowhow가 있는 민간 법인이 추진하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욱이 운영보조금 지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에게 울이 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의 태생적 한계는 우리가 현재 환경을 바꾸고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청소년시설의 태생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한계를 지혜로써 풀어나가며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자.

- 수련관이라는 이름은 친근하고 다가가는 느낌의 이미지는 아니다.

청소년수련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이름에서 나타나는 비친근성과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전근대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련이란 용어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용어는 분명 아니라고 본다. 마치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고도의 훈련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수련관 혹은 수련원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생소하며 또한 편하게 접근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분명 아니라고 본다. 과거 수련이라는 이미지가 정신의 세계를 바로 세우고 신체를 단련하는 의미였다면 현대는 소통과 교류와 자율적 활동 그리고 평화, 생명 등의 의미를 강조하는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논함에 있어 시설의 명칭 변경이 비본질적이고 주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명칭이 그 시설의 이미지와 정체성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변수 일수도 있는 것이다.

때론 비본질이 본질을 정의하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

- 청소년수련관과 행정기관과의 관계설정을 잘 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시설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로 되어있다. 단순히 갑과 을의 관계로 되어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갑의 횡포 내지는 갑의 일방 통행식 일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갑과 을의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계약의 형태가 아닌 협약의 형태로 상호 보완과 협업의 관계설정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 존재하고 매년 운영보조금이라는 매력적인 무기를 가진 갑에게 을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폐단들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행정기관은 직접운영 하기 어려운 시설을 경험과 경륜을 가진 책임감 있는 민간법인에게 시설 운영을 위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민간법인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행정기관의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 함으로써 시설건립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민간법인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Partnership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유연한 행정구조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활동과 체험 중심의 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행정구조와 시스템에 익숙해 지는 순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가치의 전달도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의 이익과 활용을 위해 건립된 공공시설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최소한의 수익을 내야한다. 그 이유는 과도한 수익사업으로 운영 될 경우 공공기관의 공익성 보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마인드로 운영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익사업 중심으로 운영 될 경우 청소년들의 활동의 영역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 확보와 청소년 활동과 체험의 공간들이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사업에 대한 투자와 고민보다는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와 고민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우선 순위로 둘 수 밖에 없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많게는 전체 예산의 40%를 적게는 10%미만의 운영보조금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의 경우 운영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시설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밖에 없고 그럴수록 청소년사업은 위축되고 중요도 면에서도 차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심화된 지방재정 악화는 현재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으며 예산 삭감의 우선 순위로 청소년사업이 거론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총 예산 23조 2319억원 중 여성가족청책실예산이 1조 8515억원이며 그중 아동 청소년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0.7%인 187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울시의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 형식과 결과물에 집착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행정기관과 의회는 끊임없이 실적과 결과물을 요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실적과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적과 결과물은 법인이 지속적으로 수련관을 운영 하는데에 있어서 위.수탁 심사위원들과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고 있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발하고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러한 실적과 결과물에 집착한 나머지 내용과 깊이가 없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치르는 식의 프로그램 운영이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적을 내기위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집착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때우기 식의 수박 겉핥는 사업추진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실적과 결과물을 배제하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고백컨대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즐기는 수준의 낮은 단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적을 위해서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쁨을 두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 한 것이다.

- 훈련된 양질의 지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비현실적인 급여체계는 결국 잦은 지도자의 이직으로 이어져 청소년수련관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본다.

배치지도사의 경우 연봉이 2,000만원이 넘지 않은 현실에서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의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배치지도사 외에 다른 지도자의 급여 수준도 배치지도사 수준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도자들의 처우와 복지의 개선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지도자의 정원을 급수별로 정원을 정하고 총 정원은 28명 내외로 정해놓고 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본다. 최소한 사회복지사 수준의 처우와 복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지도자들의 잦은 이직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청소년사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문제 뿐이 아니라 수련관의 자체 교육시스템의 부재와 지역단위 혹은 전국단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신규 지도자들에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중견 지도력자에게는 메너리즘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저하와 창의적 업무추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도자들의 이직으로 나타나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사업의 발전보다는 전임자의 사업을 익히고 답습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같은 현상은 청소년계의 발전에 있어서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며 필히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을 논하기 앞서 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소명의식을 가진 양질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해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지도력의 마인드와 훈련되고 소명의식을 가진 청소년지도자가 없다면 그 시설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에 불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시설운영이라는 외형적인 면에 집착해 가장 중요한 지도력 만들고 훈련시키고 키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청소년수련관의 수준은 그곳에서 일하는 지도자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단순하면서도 중차대한 사실을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다.

올해부터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초창기 단계라 시정하고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장에서 부족한 이론을 습득하고 서로 토론하며 미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본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교육과 함께 지역단위의 중간관리자 과정의 교육 그리고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있을 수 있겠고 소그룹단위의 학습모임도 유효하다고 본다.

교육의 형태야 어찌되었건 우리가 연고자하는 최종의 목표는 훈련되고 소명의식을 가진 양질의 지도력을 확보하고 이지도력들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 본다면.....

- 소극적 기능에서 적극적 기능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외형적으로 훌륭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다른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

소년들이 수련관을 찾는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1개 자치단체에 1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으로 거리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본다. 소극적인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을 적극적인 청소년수련관의 역할로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은 미흡하지만 훈련된 지도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Knowhow와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혹은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의 기관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찾아가는 프로그램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학교 축제 지원사업은 늘 판에 박히고 그렇고 그런 학교의 축제를 청소년수련관이 컨설팅하여 색다른 축제문화를 만드는 사업, 각 학교의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캠프사업 등 현재 많은 청소년수련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련관 밖의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고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위상과 기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찾아오는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도 청소년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본다.

- 청소년수련관에 색깔을 입히자.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비슷한 규모와 시설에 늘 매년 추진해 왔던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해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 이유는 그렇게 추진한 프로그램들은 실패의 위험이 적고 모집이라든가 진행에 일정부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 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 때문에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청소년수련관들의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고 특색이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한다. 물론 수련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지만 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 된다고 단정 지어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다만 위의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이 외면하고 참여가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수련관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성공한다면 개별 청소년수련관의 우수한 특성화 사업이 전국의 청소년사업의 모델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수련관 별로 전통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되 특성화되고 심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별 수련관의 특성화된 사업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그들의 흥미를 끈다면 서울뿐이 아니라 경기도 인근에서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지역의 의미를 기초단위에서 광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해석한다면 더욱이 청소년수련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은 필요하고 본다.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혹은 기타 시설의 경우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용도를 변경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과 청소년 전용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을 행정기관이 보존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아마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그러한 시도가 쉽지 않은 아닐 것이란 예상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서 개방된 사고의 전환으로 개별시설의 특성화사업을 구상하고 기존의 시설을 과감히 용도 변경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사업추진의 장으로 구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청소년수련관의 토요일을 청소년 세상으로 만들자.

청소년수련관의 주인공은 청소년이고 청소년지도자는 주인이다. 주인공은 전면에서 조명을 받으며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그러나 주인은 방문한 손님을 기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맞이하는 것이 참된 주인의 역할이다. 청소년 지도자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공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의 주인공이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청소년 없는 청소년수련관, 이쯤마 수련관이란 외부의 곱지 않은 눈총과 따가운 소리를 들어왔다. 심지어 체육센터나 문화센터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왜 그런 소릴 들어야 하나?

그렇게 된 이유가 모두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부실과 청소년지도자들의 소명의식 부족만으로 돌리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항변 할 수 있다. 그것이 결코 그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간 한국 사회의 병폐중의 병폐인 인성과 개성의 개발보다는 입시위주의 학습중심교육, 학교 교육의 폐쇄성 학벌 중심의 출세 지향주의,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로 나타나는 개인주의 등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토요일만이라도 전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물론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청소년들의 토요일은 청소년수련관이 책임지는 지킴 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토요일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토요일의 청소년수련관은 놀이터요, 배움터요, 사귄터요,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또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의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본다.

-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형님의 역할을 하자.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 중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찾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청소년수련관은 시설 중심의 운영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이 단지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센터의 역할뿐이 아니라 지역의 유사한 기관들 즉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각종 쉼터, 상담기관, 복지관 그리고 청소년들의 활동과 상담과 보호 그리고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의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사업과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슈를 개발하며 청소년 인프라를 확장하는 일에 청소년수련관이 중심적 역할을 통한 허브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물론 전문가 중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러한 기능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의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고 시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청소년수련관은 훌륭한 시설과 훈련 된 우수한 지도력과 청소년사업의 경험과 경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지원하는 형님의 역할을 통해서 청소년관련 사업의 인프라확장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만들어 가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점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소년계의 발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에서 가져야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러한 지역사회 청소년사업 관련 기관 중에서 형님의 역할을 시설장의 경륜과 맨파워로 만들어 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형성된 구조는 시설장의 공식시에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발생한다. 바람직한 구조는 청소년수련관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져야지만 지역사회에서 형님의 역할과 허브의 기능을 가질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바람직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역할을 위해선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눈앞에 보이는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들은 없는지? 한번 짚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제 조건이 되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개인과 개별시설의 이기심이 우리라는 공동체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지난 7-8년전에 서울시의 경우 시립시설을 자치구로 이관하는 조례제정 작업이 있었다. 청소년수련관의 입장은 자치구로 이관되면 청소년시설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 더 악화되고 재정의 지원도 어려워져 결국은 수련관의 바람직한 운영이 어렵다는 논리로 거세게 반발했던 기억이 있다.

또한 3-4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경기도 인근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해서 수련관들을 하나 된 재단의 틀에서 운영하는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문하고 그것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인센티브 평가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하면서 청소년 사업이 여성가족재단 소속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무수히 많은 소문들이 있었다.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을 반대했던 외형상의 이유는 재단설립과 설립 후 유지되는 막대한 예산을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을 한다면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나타 낼 거라는 거였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전리품으로 재단이사장과 임원들의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재단 설립 반대의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만 않았지만 재단 설립의 긍정적인 면도 함께 이야기 되고 토론이 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계의 인프라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며 청소년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도 어느 정도 해결 되고 서울시의 21개 청소년수련관의 인사교류를 통해 사업과 경험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본다. 앞서 이야기 했던 수련관의 자치구 이관도 마찬가지다. 마치 자치구로 이관되면 청소년 사업이 큰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반대의 이면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내려 놓기 어려운 개인과 시설의 고충이 있는 것은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익과 청소년의 비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힘을 모으기 전에 목소리부터 모으자.

청소년사업과 정책과 법률제정 등과 관련하여 단체의 입장과 시설의 입장이 다르고 시설의 입장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으로 각각 다른 입장과 주장이 있다.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내는 민주적인 과정 또한 청소년계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그간 중요한 이슈나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할 때 한목소리를 내는데 인색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상대방의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고 내생각과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생각의 전환을 전제로 크게는 청소년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과 흐름이며 작게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때 힘이 모아 진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수단이었는지를 새삼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도 많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작은 바람이 있다면 현장에 있건 없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던 청소년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르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하나 들 늘어날 때,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본다.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2.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김 종 국 (송파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김 종 국 (송파청소년수련관)

1. 들어가는 말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있고,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밖에 청소년보호시설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청소년활동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청소년활동 현장의 중요한 기관이자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듯 다양한 청소년 시설 중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명에 관한 주제 발표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신 김영득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은평청소년

년수련관을 운영해오고 있는 김관장님의 발표 내용은, 저 역시 청소년육성 현장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오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심전심의 마음이 가득해 모든 내용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애로사항과 아픔들을 일선의 수련관장들을 대신해서 진솔하게 고스란히 토해내고 있다.

특별히 김관장님의 토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거기에 덧붙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에 토론자 본인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첨언하고 김관장님의 토론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2.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지하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이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특성화와 전문화 미흡, 수익사업 치중에 따른 고유 목적사업 축소, 시설의 낙후, 열악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문제, 보조금 지원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청소년지도자의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직업만족 수준에 있어서 근로환경과 직업의 안정성, 후생복지, 임금 등이 매우 열악한 현실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행 연구자들이 이미 수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한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오늘 또 이러한 문제점들을 들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본래대로 돌려놓자. 청소년수련관에는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성문화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의 특화시설이 수련관 내에 위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수련

관이 운영 초기에 프로그램 영역 확장을 통한 청소년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시설들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을 수련관의 역할 확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관 운영 평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니 오히려 수련관 평가만 더 나빠진다. 더군다나 이러한 기관으로 인해 정작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실 등의 청소년활동 공간들이 부족해 수련관 운영에 크게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상담복지센터 등의 기관들은 수련관 밖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수련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할 때가 되었다. 수련관 사업의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일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해야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내의 전문기관으로서 학교나 사교육 시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

셋째, 학교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공유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은 학교와 CA활동, 축제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리더십 개발, 수련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로 협력해 왔다. 청소년수련관과 학교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각종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없는 동아리활동 장소 제공, 진로체험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수 등 청소년수련관과 학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시설 및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문화축제를 정착시키자. 최근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문화기획단 등이 중심이 되어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들과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를 기르는데 크게 기

여할 것이다.

다섯째, 공교육체계를 벗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금자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학교 밖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사례는 낮 시간 청소년수련관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다. 정규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과 왕따나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들에게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대안학교의 운영은 더 없이 따스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수련관의 대안학교 설립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설계도 학년별로 차별화 해보자. 학교는 교급과 학년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청소년프로그램은 교급의 학년단위는 커녕 교급별 또는 교급을 섞어서 참가 대상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처럼 학년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여 언젠가는 학교에 버금가는 청소년활동이 실시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지역사회 개발과 참여확대를 위한 기능이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목적을 지닌 시설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 역량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각종 청소년동아리와 그들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환경 개선활동 등이 포함된다. 즉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사회개발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 수련관 운영의 반성과 성찰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관장님의 발표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시급히 해

결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주말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자. 서울시의 경우 토요일을 유스데이로 지정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련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게 느껴진다. 최근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문제해결 방법 중 체육활동이 대안활동의 하나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련관 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을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중독예방과 치유의 대안활동은 물론 학업의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건강한 신체도 단련할 수 있다. 주말에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시설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청소년의 놀이터, 배움터, 꿈과 희망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명칭을 바꾸자. 딱딱하기도 하고 혼란하는 기관 같은 느낌을 갖게하는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작명의 의뢰를 청소년들에게 맡기자.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주체인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르고 싶어하는 명칭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그 실행의 주체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나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아니면 우리 한국청소년활동학회가 추진해도 괜찮을 것이다.

셋째, 범청소년계의 결집이 절대 필요하다. 청소년시설과 단체, 학계, 청소년 관련전공대학생 등이 모두 하나로 뭉쳐질 때 진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 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다' 라는 말을 그것을 뒷받침 한다. 청소년계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열악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운동도 함께 전개해야 한다. 수 많은 정치인들은 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배분에 늘 소극적인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범청소년계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계의 발전이 하나 씩 뒤따를 것이다.

넷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많은 청소년시설과 단체, 이용시설이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문화의집, 쉼터, 복지관, 문화체육센터 등이 있다. 각각의 청소년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청소년수련관의 커다란 시설 규모와 적지 않은 직원 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등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을 균형있게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대표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활동을 독점하는 기관은 아니며 다른 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청소년기관 및 유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촉매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토론을 마치면서 청소년시설의 역할과 기능과는 조금 동떨어진 운영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 약정기간이 3년이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으면 2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최초 3년은 너무 짧다. 이로 인한 수련관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청소년수련관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직원의 고용안정은 유능한 청소년지도자를 유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바라건대 대학을 졸업하는 예비청소년지도자에게 청소년수련관은 매력적인 직장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과 위수탁운영 시스템이 유사한 종합사회복지관은 꽤 오래전부터 최초 5년에 연장 5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되어 왔던 전기와 수도요금의 문제다. 수련시설이 복지시설이 아니다보니 이러한 공공요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청소년수련관의 수영과 헬스, 대관 사업 등의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 부가세 납부건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보조금이 부족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지도자가 부족하여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니 수련관 운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체단체 그리고 관련 협회들은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결국 청소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범청소년계 구성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4. 나가는 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 관한 한 지역사회의 대표 시설로서 위상을 갖추고 청소년활동의 허브기관. 학교 내와 밖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관련시설의 연계, 청소년 관련자의 역량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과 주변인들을 위한 청소년종합센터로서 반드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의 업무역량과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연수와 지구촌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기개발의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행복해야 청소년들이 행복하듯,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행복해야 지역의 청소년들도 당당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우리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청소년지도자들을 순진하다고 한다. 청소년이 좋아 청소년들을 만나며 일하는 현장의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정말 순수하다.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도 아무런 불평없이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그들이다.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을 막 대하면 안된다. 청소년지도자들도 개인적인 삶이 있고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

하는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김관장님의 발표는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세밀하게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더불어 수련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까지 제시해 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발표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강임(2003), 청소년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2002),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김형주(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맹영임(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3.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백 준 종 (한국스카우트연맹)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백 준 종 (한국스카우트연맹)

I. 들어가는 말

“16년 만에 반 토막 난 청소년단체 회원”

지난 10월 18일자 모 일간지 기사의 소재목이다. 다소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래 동안 침체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주요 원인과 진단을 내부적 문제로 볼 것인가? 외부의 환경으로 볼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70~80년대 까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넘쳐 나는 수요에 따라 최고의 정점에 있었으며, 적어도 학교나 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 때에 따라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청소년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운동성은 단체의 내부 에너지를 축적함으로써 다가올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키우는 일, 즉, 내재적 야성(野性)을 키우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일례로 가정의 경제 운용 형태나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책 환경을 송두리째 뒤 흔든 1997년의 IMF 사태는 청소년 단체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들어 난 일대의 사건

이라 하겠다. 환경변화에 취약한 청소년단체에 있어서는 위기의 서막인 동시에 소위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고난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한 인터넷 보급에 따른 청소년들의 문화 주도 현상, 정보 홍수에 따른 욕구 변화의 단(短) 주기성, 행동의식과 형태의 다양성 추구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놀이문화가 조성되었고, 일부 교직원 단체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 부족, 교육과 청소년정책에 있어서의 주변부화 등은 그 동안 "slow death"한 모습에서 급격하게 쇠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청소년단체는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70~80년대식의 정부 지원체계 복원을 통한 위기극복과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과에 매몰되어, 새로운 시대의 『청소년 욕구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향력의 원(圓) 밖에 있는 외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관점에 대안을 제안하기 보다는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짧은 소견이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고, 단체에 따라서는 입장과 환경이 다를 수도 있으나 격랑의 시기를 함께한 청소년 지도자로서 제기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에 임하고자 한다.

II. 진단

□ 조직 역량에 미치는 요소

회원 수는 조직역량의 바로미터이며, 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조직은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속성을 지닌 만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하거나 부족한 측면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림①은 청소년단체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회원 수는 단순히 내부의 노력이나 외부의 환경문제에 국한할 수 없으며, 이들 두 요소의 결합을 최적화 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현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 미래가치 창출 동력의 위기 터널 상황 초래

작금의 청소년 단체는 내부적으로는 “지도자 기피→대원 감소→재원부족→투자부족→프로그램 부실→대원 감소” 라는 위기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다. 그 만큼 단체의 존재 가치가 하락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으로써 외부의 자원을 영입하거나 재원을 조달하는데도 과거에 비해 몇 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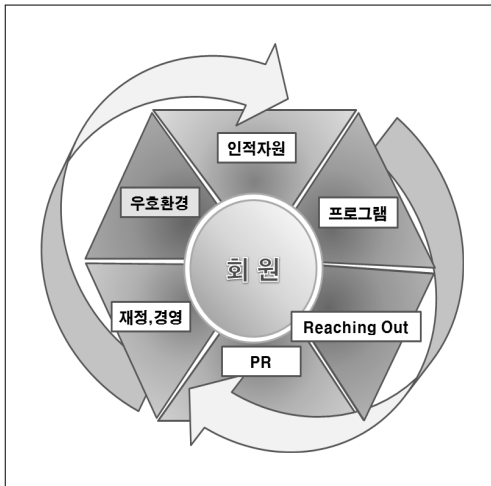
또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단체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갉아먹고 있다. 예컨대 지도자를 영입하고, 양성(훈련) 과정을 거쳐 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되에도, 지도자가 청소년단체에 머무는 기간은 고작 1~2년에 불

과하며, 결국 대신할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학교장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 존폐가 갈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각 청소년단체의 등록 방법에 따라 (3년가입제, 1년가입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 가입대원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봉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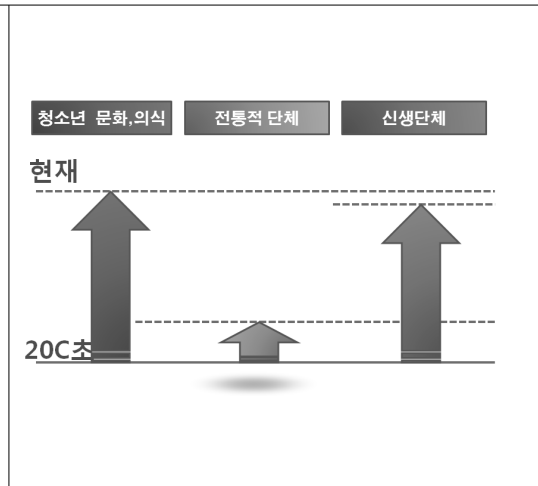
□ 문화 수용력 부족(프로그램 개발)

앞서 제기한 것처럼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의 문화 수용성은 매우 빠르며, 그 주기도 매우 짧은데 비해 청소년단체는 특히, 오래된 단체일수록 그 대응 속도는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림②”에서 보듯이 나날이 생겨나는 신생단체와 경쟁하고, 기업 차원에서 제공되는 단기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① 회원수에 미치는 요소



그림② 문화 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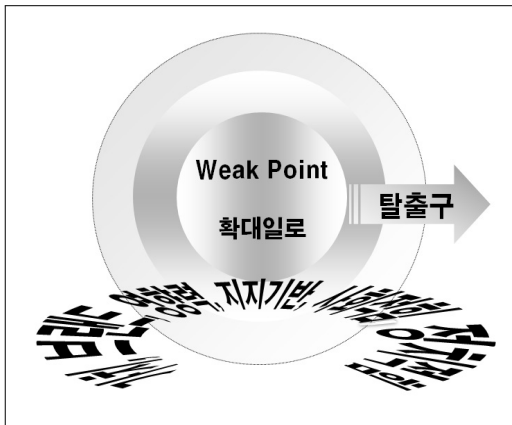


□ 사회와의 호흡 부족(Reaching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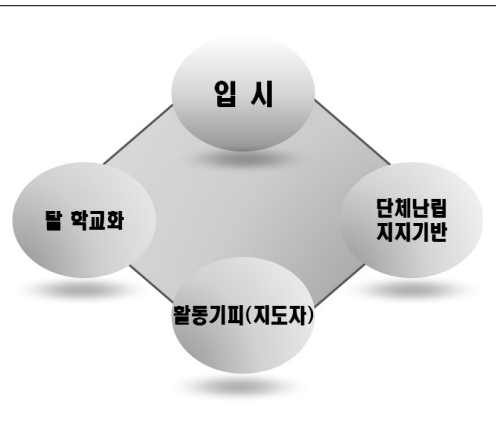
인간의 사회성 발달이 개인의 성장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조직이 갖는 사회적 역동성(역할과 기여)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임에도 청소년 단체는 사회와 호흡을 함께 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외부환경에 의한) 위기 상황 시 응원군을 얻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이 되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③”은 위기 시 탈출구로서 Reaching Out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도식화 하였다.

내부의 역량 감소는 외부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정책과 학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부침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그림④”에서 입시환경과 학교 내 청소년단체 조직기피, 지도자 참여 부족을 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의 위기 요인으로 제시 하였다.

그림③ Reaching Out



그림④ 외부환경



Ⅲ. 대안(제안)

□ 학교와 지역에서의 동반 성장 모델

“장구는 일심동체다.” (맞)장구를 쳐야 제소리를 낸다. 그 통로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고, 밖에는 소리의 울림을 잡아주는 몇 가닥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 즉, 정서적형태적으로 학교와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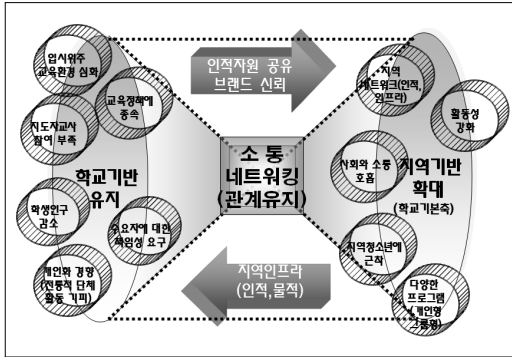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는 학교와 함께 성장해 왔고, 청소년 인성 함양의 큰 역할을 1세기에 걸쳐 함께 책임져 온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 가치가(역할, 기능 등) 훼손 되거나 폄하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청소년 단체는 사회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에 일정 부분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그림⑤”는 학교와 지역 간의 소통구조, 협력 모델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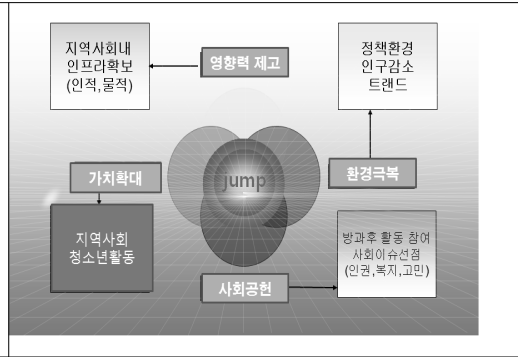
□ 지역사회 내 인프라 구축과 역할 제고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른 부침을 최소화 하고 균형 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함으로써 청소년 단체의 가치와 영향력을 함께 제고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선순환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⑥)

그림⑤ 학교와 지역과의 동반 성장



그림⑥ 청소년단체의 사회적 역할 제고



□ 성인자원의 확대와 성인운동

청소년단체에 있어서 청소년 운동을 책임지는 다수는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육적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최고의 환경에서 청소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운동은 회원수에서나 활동성에 있어서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을 차치하고 인적 구성원과 활동공간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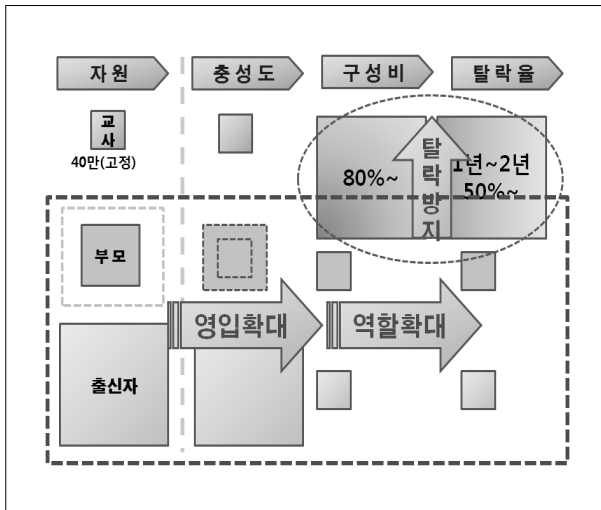
실현가능하고, 매우 실천적인 성인자원의 영입과 양성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모집 뿐 아니라 집단이 갖는 속성을 갖춘 그들 스스로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사회·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정 부분 그들만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그 운동이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관리역량”을 강화할 노련한 기술적 노력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⑦”은 각 단체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자원에 대한 영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사회적·정치적 역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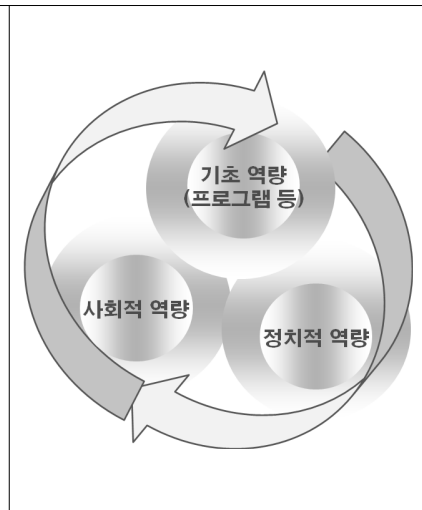
고도의 산업사회, 다양성의 사회, 실시간 공유되는 정보 사회에 있어서 집단이 갖는 사회, 정치적 힘은 본래의 존립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되었다. 과거 한 두명의 실력자에 의한 힘의 발휘는 쉽지 않은 세상이다.

지속적인 사회적 참여와 함께 성인자원의 조직화·규모화와 동시에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는 각 단체 뿐 아니라 청소년계 전체가 고민해 볼 사항이기도 하다. 조직이 갖는 사회적 지지는 “부러움 시선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가치”를 상승시키며, 정치적 힘은 “단체의 성장 환경을 최적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⑧”은 각 단체가 갖는 성장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림⑦ 성인자원 영입 모델




그림⑧ 조직의 성장 역량



IV. 마무리

지난 10여 년 간 청소년단체는 기능이 떨어져 가는 지구를 떠도는 거대한 위성에 비유 될 만큼 수 십년 전에 투입된 동력과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그 동안 청소년단체가 국가 사회에 미친 기여,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청소년단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청소년들은 인성을 먹고, 먹어야만 하는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4.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청소년단체

김 용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청소년과 함께 행복한 청소년단체

김 용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청소년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주제 발표자께서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면서 그 중심에서 느낀 깊은 고민과 성찰의 결과로 제시한 대안들을 보면서 청소년단체들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환경 변화와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공감이 갔다.

특히 “지난 10년간 청소년단체는 기능이 떨어져 가는 지구를 떠도는 거대한 위성에 비유될 만큼 수 십년 전에 투입된 동력과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유가 모든 청소년단체들이 당면한 문제이며, 해결 또한 결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백양백색(百樣百色)의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소속된 73개 단체를 포함하여 약 300여개의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청소년단체들의 상황과 입장이 백양백색이다.

전국적으로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단체들은 학교현장에서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과 청소년회원 감소라는 오래전부터 학교현장에서 보내온 신호와 직면한 변화 및 위기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형 청소년단체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방안모색에 부심하고 있을 때 어떤 청소년단체는 학교대로 편입하고 싶어도 지도교사 가산점 미부여로 더더욱 지도교사 확보가 어렵고, 단체의 인적자원 및 예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 학교로 진입조차 못하여 기존 학교대 청소년단체를 부러워한다. 또한 일부 청소년단체는 눈앞까지 닦친 위기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포착하는 청소년단체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단체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 속에서 주도적으로 한국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 온 대형 청소년단체의 역할분담과 더불어 다른 소규모 청소년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 청소년육성과 발전에 미미하지만 자리를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자체 역량부족과 전문인력 미비로 인하여 대안마련은 시도조차하지 못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소규모 청소년단체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방안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공교육 현장과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청소년단체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와 지식위주의 교육이 가져다주는 절름발이 공교육에서 청소년들을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청소년단체가

맡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균형있는 청소년육성을 위해 애정과 희생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은 공교육에 대해 입시와 학업으로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청소년단체에게 교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비록 일부였을지 모르지만 벌써 10여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에 참가하면 청소년단체 지도에 관심이 있는 줄 알고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맡기기 때문에 가능한 청소년단체라는 말이 들어간 직무연수는 받으면 안 된다는 어느 교사의 말은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단체의 상황이 어떤지 말하고 있다.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단체 설립목적에 의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과 오해를 가진 교사들의 소수 의견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10여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단체를 보는 시각과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와 운영에 있어서 지도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 모 교사단체 홈페이지, 2006.4.10〉

공교육의 무거운 짐, 이제 청소년단체를 지역대로 돌려줘야 한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도 없고, 공무처리도 안 되는 이상한 업무 그것이 청소년단체 업무이다. 1~2년차 신규교사도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토, 일요일 휴무를 반납하고 열심히 이행사, 저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참가하지만, 출장비도 없고, 늘 도사리는 사고와 피로의 누적에 파김치가 될 때 쯤 새로운 교사가 전입해 온다. 비로서 무거운 짐을 덜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수시로 생겨나는 각종 청소년단체들이 호시탐탐 학교를 넘보고 있다. 일단 학교에 들어와서 단원만 뽑아놓으면 스스로 성장해 가는 학교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는 교육청 상부에 수시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간단치 않은 일들이 교사의 업무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과도한 잡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기형적인 방법으로 공교육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공교육에서 담보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넘치는 사설학원과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사회단체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교사가 공교육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각종 청소년단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신입교사들이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무관심한 선배 교사들이 있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김선생님이 1년만 고생해 주세요” 라는 관리자들의 뿌리 깊은 매너리즘에 기생하며 공교육이 신음하고 있다.

〈중부일보 2013.8.1. 기사〉

〔승진가산점 불모 잡힌 교사들〕 천덕꾸러기 청소년단체활동

학생안전에 경비문제까지 골치..승진하려는 50대만 지도교사 지원

천덕꾸러기 청소년단체활동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안전의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에게 청소년단체활동은 부담스러운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 A중학교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의 말이다. 그는 5년 전 A중으로 전입 하면서 청소년단체활동을 담당하게 됐다. 기존 A중 교사들 중에 희망자가 없어 떠맡게 된 것이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게 승진가산점 0.64점이 부여되는데도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이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설립 목적에 따른 현장체험, 특별활동, 자원봉사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3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단체로 인정한 곳은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북부연맹,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남·북부연맹, 한국우주소녀단 경기 지방본부,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북부연맹, 대한적십자사(청소년 적십자 경기도본부) 등 12개 단체다.

도내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는 이들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단체가 1개 이상, 많게는 4~5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도교사들은 60시간 연수를 거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원을 모집하고, 연간 1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승진가산점 부여는 지도교사 4년차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청소년단체 운영 경비는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이어서 대원들은 복장 및 장비를 구입하고 등록비, 연간활동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중도 탈퇴 및 활동 불참 대원의 활동비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다.

수원 B초등학교 교장은 “희망자가 없어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들에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승진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교사는 50대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단체들 역시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부여되는 승진가산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단체를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단위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청소년단체로 넘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수 이수 30시간, 연간 프로그램 운영 50시간, 승진가산점 부여 2년차부터 적용 등의 시행으로 지도교사들의 업무과중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교육과의 경쟁

창의적체험활동 및 주5일 전면실시를 앞두고 청소년계는 많은 세미나와 관련된 회의를 가지면서 그 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기대했지만 지도교사들이 주말에 활동을 꺼려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단체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청소년단체가 지도교사와 청소년회원 감소 등으로 고민하는 동안 빈자리를 이제는 전문성과 조직을 가진 사교육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청소년 단체들은 이제는 사교육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일당백(一當百)으로 모든 분야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들의 헌신(獻身)과 의욕만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진 사교육 프로그램을 상대하기에 벅찬 현실이다. 이제 청소년단체들은 오랜 경험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부 청소년수련시설들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디 청소년시설이 잘한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청소년단체들도 자신의 단체만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개발은 청소년단체의 몫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정 부문 해결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별 비중에 균형 필요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당수

의 청소년단체 구성원들이 초등학교에 과대하게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짚어 봐야 한다. 학업에 바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활동을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균형있는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들도 특정 연령대에 몰려있는 활동을 벗어나서 대상별 균형 있는 활동과 운영에 대해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계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인 전·중기 청소년과 함께 대학생 나이인 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청소년단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인적자원과 예산,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어우러져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들에게만 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몇 개 청소년단체는 개별 단체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청소년단체들은 예산이라는 현실 문제로 지도교사 확보 이전에 청소년 지도사 확보 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제 청소년단체들도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시민단체(NGO 및 NPO) 등과 함께 연대하여 상호협력에 의해 연계된 청소년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은 다시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다시 투자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청소년단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조직의 목적 등이 인증요건에 부합되면 심의를 거쳐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

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운영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유사한 청소년단체육성법을 제정하여 개별청소년단체 육성법이 없는 일반 청소년단체도 일정 인증자격을 구비하면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요구된다.

청소년기에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능동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단체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지 않고, 오늘의 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의 대한민국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청소년단체가 아니라 흐름을 선도 내지 최소한 동참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로 거듭나야한다.

큰 파도가 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활동

1. 약력 및 현황

1962년 국제로타리 인터랙트 프로그램 채택

1963년 대구 인터랙트클럽 창립 (중고등학교)

1968년 국제로타리 로타랙트 프로그램 채택

1969년 동부산 로타랙트클럽 창립 (대학교)

1997년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창립 (646개 청소년클럽, 24,983명, 평균회원수 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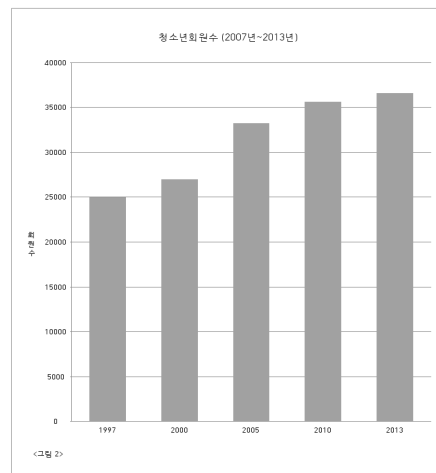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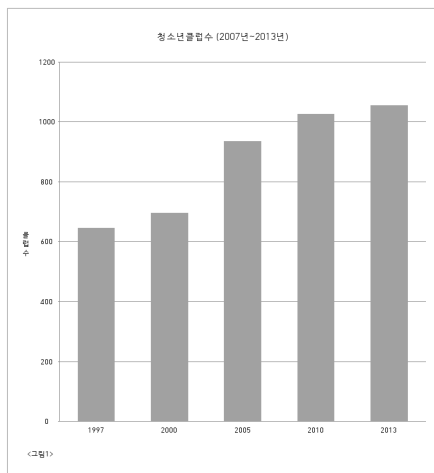
1997년 리틀랙트클럽 창립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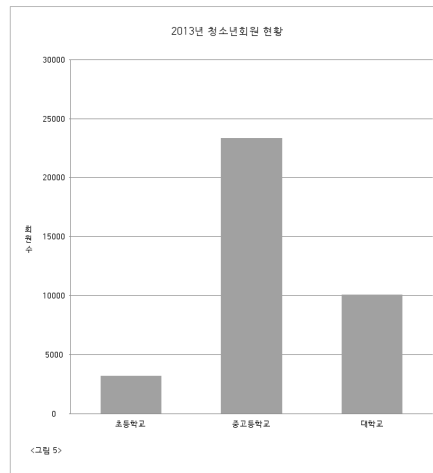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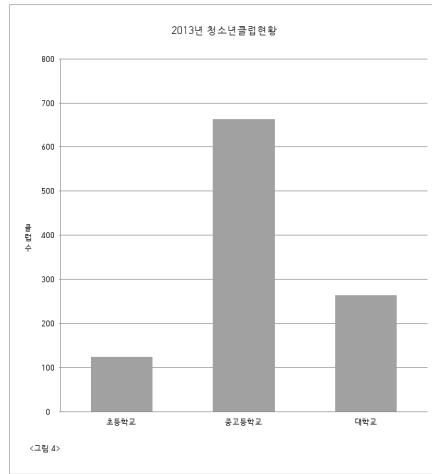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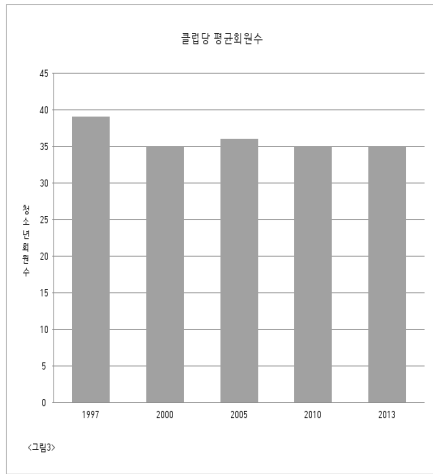
2013년 현재 1,051개 청소년클럽, 36,568명 (평균회원수 35명)

○ 리틀랙트클럽 (12%) - 124개 3,207명

○ 인터랙트클럽 (63%) - 663개 23,299명

○ 로타랙트클럽 (25%) - 264개 10,062명






2. 교육청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현황

- 1) 2007년 인천시교육청
- 2) 2008년 충청북도교육청
- 3) 2008년 울산광역시교육청
- 4) 2009년 강원도교육청
- 5) 2010년 경상북도교육청
- 6) 2012년 대구광역시교육청
- 7) 2012년 충청남도교육청
- 8) 201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 9) 2013년 전라남도교육청

3. 법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

- 1) 연2회 지도교사 연수회
- 2) 전국로타리청소년자원봉사대회
- 3) 청소년해외자원봉사활동
- 4) 한국로타리청소년리더십연수회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5. 청소년활동의 재조명

손 보 라 (용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의 재조명

손 보 라 (용산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활동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들의 욕구와 경험하는 문제가 예전에 비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가 학업문제, 교우관계, 가정문제 뿐만 아니라 우울과 자살문제, 청소년폭력, 인터넷 중독, 성추행 및 폭력 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높은 학력과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여가시간 부족으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가 미흡하고 건전성장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매체 및 인터넷 게임중독, 음주와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성교육을 꼽고 있으나 막상 자녀가 학교생활로 접어들면, 평가 그중에서 시험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 서열에 울고 웃게 된다. 또 시험이라는 평가를 해야 아이가 공부를 한다는 말을 스스로 없이 하며 공부를 위해 평가를 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평가를 위해 공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력은 높지만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학교가 단순히 교육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보건·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교권의 하락과 교사의 업무과중,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에 현기증을 내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시설들은 사회변화의 추세와 요구에 따라 사회상을 반영하며 무수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청소년지도자들이 유사 집단과 비교하여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창의적 문제해결이 가능한 체험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나, 이러한 활동들이 청소년에게 유의미한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능력개발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했는지 지표로 드러낼 수 없어 학교를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청소년들은 쉽게 외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청소년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 청소년활동의 다른 형태의 접근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성취목표와 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지면서도 전체 프로그램에는 성취목표와 과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몇가지 시도를 해보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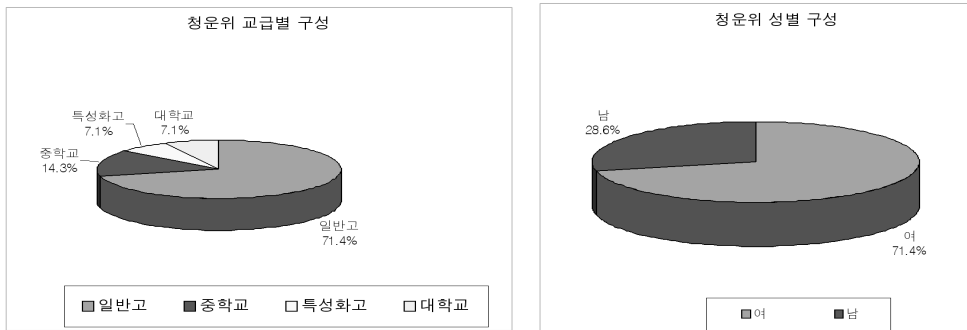
2. 청소년활동의 다양한 시도

1) 사례1.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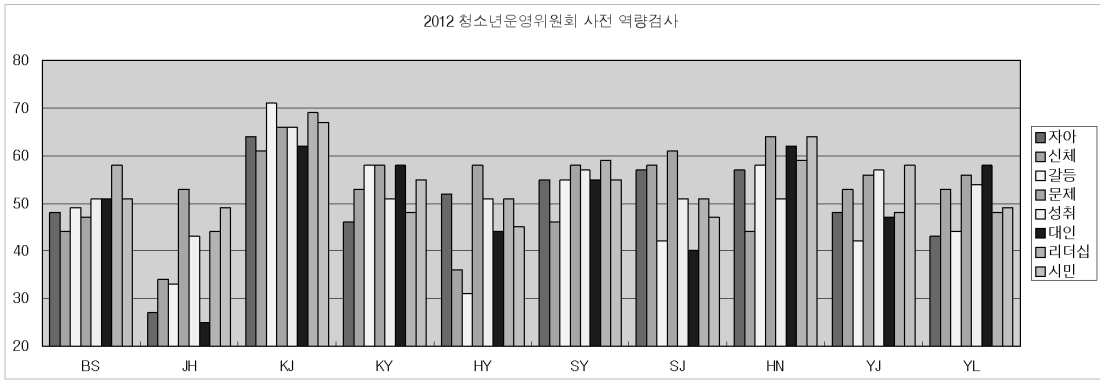
년역량검사를 사전과 사후 실시하여 비교해보기로 하였다. 용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에코기획단(환경동아리), 청소년글로벌리더(국제교류동아리), 댄스동아리(홀리, 스텝바이스텝)에 역량검사를 적용해보았고, 그중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외나르도 구성원은 총 15명중 교급은 일반고 10명(71.4%), 특성화고 1명(7.1%), 중학생 2명(14.3%), 대학생 1명(7.1%)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년은 중학교3학년 2명(14%), 고등학교 1학년이 5명(36%), 고등학교 2학년 6명(43%), 대학교 1학년 1명(7%)이다. 성별은 여자 10명(71.4%), 남자 4명(28.6%) 구성되어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계획서

일정	계획 변경전	계획 변경후	비고
3월	청소년운영위원 신규위원 선발	청소년운영위원 신규위원 선발	
4월	청소년운영위원 위촉식 & 신규위원 소양교육	2012 놀라운 토요일 EXPO 진행	
		신규위원 소양교육 및 임원 선발	
5월	수련관 내부 모니터링 활동	수련관 외부 모니터링 활동	
6월	수련관 외부 모니터링 활동	청소년 토론회 기획	
7~8월	청소년 토론회 기획	청소년 토론회	
9월	청소년 토론회	소양교육	
10월	청소년축제 기획	청소년축제 기획	
10월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샵	
11월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샵	청소년축제 운영	
12월	청소년운영위원 교류활동	청소년운영위원 교류활동	
1월	활동평가회	수련관 내부 모니터링 활동	
		활동평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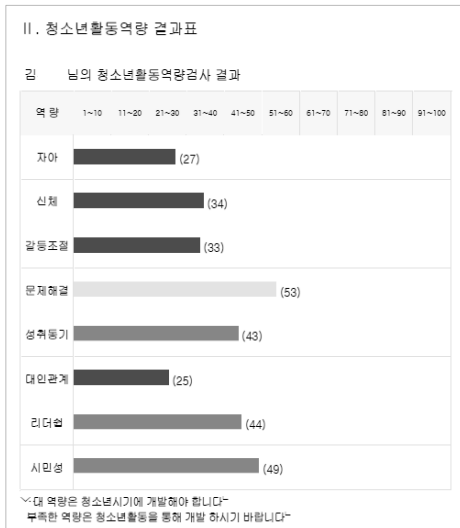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진행과정에서 전체 프로그램에는 성취목표와 과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애초의 계획에 변형이 필요했다. 활동의 실행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성취목표와 과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지도할 때 방향잡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강점역량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아역량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 부족한 역량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맞추거나 진단을 통한 활동의 컨설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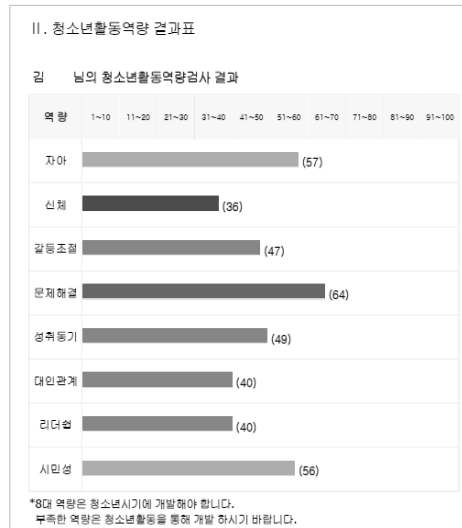
‘외나르도’의 경우 위원들의 전체적인 역량이 고르게 잘 발달해 있기에 연간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체역량을 보완해야할 청소년들이 많아 활동 초기에 외부활동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연속에서 체험활동을 위해 워크숍을 계획했으나 학교와 학원 과외 등 너무나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는 구성원이 많아 끝내 진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외나르도 중 A(JH)는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도할 대상이 되었다.

아마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성취목표만을 고려했다면 놓치고 갈 수 있는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KH 사전검사〉



〈KH 사후검사〉

A의 경우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리더십 역량을 기르기보다 기초역량증진이 더 시급했다. 자아 조절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리더십 역량이나 대인관계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면 오히려 자신감 부족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자괴하여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이나 위축 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회의 전후로 위원들을 개별 상담을 실시하였고, A와의 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다. A는 현재의 상태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용기내어 신청한 마음가짐을 칭찬해주며, 공개면접을 통해 신규위원으로 선발될 정도로 괜찮은 사람임을 일깨워 주었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 것을 지도하였다.

또한 영양과 건강을 위해 아침밥 먹기를 권하였고, 야외활동이 아니더라도 10분 이상 산책 할 것을 지도하며 신체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A의 경우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자기소개에도 불구하고 출석율이 매우 높았고, 매활동마다 작은 역할이지만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 활동해나갔다. 이후 사후 검사결과 위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 청소년의 사례는 약점역량을 보완해나가며 부차적으로 활동역량도 조금씩 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사례 2. 학교현장에서의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학생의 특성	가족의 특성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의뢰 · 학교 부적응 · 학습능력 하 · 흡연, 도박, 규율위반, 가출 · 기본 생활규칙 미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원 : 백부, 백모, 사촌 남동생, 사촌 여동생, 사촌 남동생 · 차상위계층 · 부 사망 이후 모의 동거로 별거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역량이 강점역량 · 그림에 소질이 있음 · 보호자 : 지원을 받고 싶어함

<p>학교내에서의 지원 및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상담복지부장의 협력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가정방문 - 백모와 정보 공유 - 생모와 연락 시도 - 미술(만화) 동아리 결성준비
---------------------------	--

지역사회의 지원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가게을 통해 ‘아름다운 희망나눔’을 통해 교육지원을 통해 미술학원 등록 - 백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위한 조언자로 유사 경험자인 아름다운 가게 ○○점 매니저를 연결
---------------	--

K청소년을 위해 교내 학생복지와 관련된 인력 즉 교육복지부장,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육청 교육복지프로젝트 조정자가 연합팀을 구성하여 K청소년의 사례를 공유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사례개입의 방향을 정하는 등 그 학교 최초로 첫 사례회의가 개최되었다.

지역내 유사기관과 연계하다보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의 경계를 오가는 사례가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의 주변에 교사 또는 가족 등 협력자가 있고 청소년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인테이크(intake) 단계에서 강점을 파악해 서비스 초기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면 그 효과가 크다. 청소년의 특성상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정적인 서비스보다는 또래와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성취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 적기 때문이다.

K청소년 사례회의에 참여한 전문인력들 모두 강점을 강화해가는 방안이 최상임을 수궁하였다. 학생부의 처벌이나 상담 등 기존의 접근이 아닌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내재된 힘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기개입 목표를 정했다.

청소년 당사자 맞춤형 서비스였기에 청소년과 가족, 의뢰자인 교사까지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위와 같이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상담분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청소년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지도가 사례관리자가 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자원

제공자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개인·가족이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여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에는 미성숙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수용정원 500인 기준으로 청소년지도사 1급 1인, 2급 1인, 3급 2인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사례관리까지 요구한다면 무리가 따르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활동과 지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지만 끊임없는 다양한 시도는 필요하다. 이 사례가 우수사례도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모든 현장에서 적용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도법이 개발되어지길 바란다.

3. 나가는 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앞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를 위해 시범사업을 2013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유학기 성공의 관건은 학교가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얼마나 원활하게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연계경험도 부족할 뿐더러 보수적이기까지 하다. 학교 내부자원이 부족한 상황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지역의 연계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이 청소년 기관이며,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이 되어 진로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거점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단순체험이 아닌 잘 조직화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는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내는 능력,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기존의 교육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이 없다는 점이다. 시험은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필·실기·구두평가, 체험활동보고서, 포트폴리오와 전시회, 활동일지, 기술·역량증진기록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김현철, 2013년) 또한 어떠한 평가 방법이 도입되어도 그 필요성은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는 누가기록으로 학생들의 역량 증진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야 하기에 결코 평가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없으면 단순한 체험활동이나 지루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활동에 따른 평가 개선 방향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프로그램의 정확한 기획과 지도법, 평가방법의 준거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발 살짝 뒷걸음쳐질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학교로부터 유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비교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청소년활동의 판단 준거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활동이 지향해야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청소년 스스로 이 활동에서 무엇을, 왜 했으며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은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판단의 기록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학부모의 요구만이 아닌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전

달해 주어야 할 것인가,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년 개개인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청소년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이 단순한 지식을 전수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선택, 몰입을 통해 스스로 배워가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 미래를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활동이 될 것이다.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6. 청소년활동의 재조명

김 태 주 (강북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의 재조명

김 태 주 (강북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활동을 보는 관점

- 청소년을 더 이상 문제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말자! 청소년은 사회자원이다!!

청소년을 사회적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문제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존재로 간주하고, 청소년 활동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일관하기 쉽다. 청소년을 비교적 성인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시민으로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활동을 실천하는 경향이 높다. ‘자원’ 또는 ‘문제’라는 상반된 청소년관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면서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풍요롭거나 안정된 시기에는 ‘자원’으로서의 청소년관이 강조되었고,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는 ‘문제’로서의 청소년관이 강조되어 왔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비행예방과 불안정한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왔다. 게다가 과거의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활동이었기 때문에 수요자인 청소년 삶에 변화를 주기에는 미약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미래의 주

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사회 모든 부문에 의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잠재력 개발을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삼고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더 이상 ‘문제’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말고 ‘자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청소년활동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원육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2. 청소년활동의 동향

과거의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수련활동만을 의미했으나, 최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으로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소년활동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육성의 영역도 청소년활동과 복지, 보호로 규정하며,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도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및 체험활동 활성화를 청소년활동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활성화를 새로이 추가하여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는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이며,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식적인 청소년참여기구들인 청소년운영위원회(시설), 청소년참여위원회(지자체), 청소년특별회의(국가) 등을 통하여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 및 정부에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것은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이다. 청소년이 사

회의 창조적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람이 청소년지도자이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활동의 여러 기재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청소년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청소년 체험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나 기관에서는 소수의 전문 인력과 청소년 예산으로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수많은 청소년 활동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 더욱 청소년시설들은 민간기관에게 설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몇 해 전부터 지자체와 정부 등에서는 각 청소년시설들의 특화시설 설치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담보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청소년활동의 특성화, 고급화, 전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청소년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나가는 말

청소년이라 함은 대부분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학생은 학교에서 청소년기의 대부분 시간(비록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주2일 연간 총175일 정도의 휴일이 있지만)을 보낸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긴밀한 학교연계가 필수 요소이다. 주제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청소년시설은 가장 공신력 있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로체험 확대 및 자유학기제 시행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호흡하는 관계가 청소년활동의 성공적인 시작이고, 이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지도자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결합한다면 화룡점정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직 종사자로서 직무표준화 및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이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이를 실현하는 청소년지도자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계획된 결과물은 산출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자도 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지도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수요자 중심적 사고로 임한다면 청소년활동은 다시 한 번 조명 받게 될 것이다.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7. 참여연구법 소개와 의의

김 정 율 (광진청소년수련관)

참여연구법 소개와 의의

김 정 울 (광진청소년수련관)

참여연구법은 실천연구(action research)를 보다 발전시킨 연구방법의 하나로 전통적인 연구방법인 면접법, 관찰방법, 질문지법, 내용분석법 등과 같은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변형 및 적용시킨 현장 연구방법이다. 1978년 국제사회교육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등장한 후, 1980년 한국사회교육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정지웅, 1995).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법(CBPR :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참여행동연구법(PAR :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등의 용어로 조명되고 있으며 농업, 보건, 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그룹¹⁾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참여연구법은 질적연구를 중시하며, 실천성을 강조하고, 인본주의와 민주성을 강조하는 연구법이다. 그리고 기존의 계량연구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참여연구는 연구자와 지역사회가 함

1) PRAM(Participatory Research at McGill) : 캐나다 맥길 대학(McGill university)을 중심 공중보건 참여연구그룹; <http://pram.mcgill.ca>
Hearing our voice: 캐나다 캘거리(calgary)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질환을 갖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참여연구그룹; <http://callhome.ucalgary.ca>
PRGA (Participatory Research and Gender Analysis): 동남 아시아의 극빈층의 여성들의 평등 문제와 가난 극복 관련 참여연구; <http://www.prgaprogram.org>
CCPH (Community Campus Partnership for Health): 참여 연구를 통해 보건 관련 공공정책 개선 과 지역사회 참여연구에 필요한 리소스 제공 (세미나 및 컨퍼런스); <http://pran-bd.org>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지역 이공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참여연구그룹 ; <http://www.scienceshop.or.kr>

게 연구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연구법은 연구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연구 태도(orientation)라는 측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정민수 외, 2008; Minkler, Wallerstein, 2003; Ahmed et al, 2004).

1. 참여연구법의 기원과 개념

참여연구는 연구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을 평등하게 포함시키고 각각이 취할 수 있는 독특한 강점들을 인식하게 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람들 그들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 연구자로서 그리고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민주적인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인하여 참여 연구의 이념적인 기원을 Kurt Lewin(1946)이 창안한 실천연구(action research)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론연구와 조사연구가 과학적 방법에 주류로 소개되어 왔지만, 이들은 이론을 위한 이론, 연구를 위한 연구의 결과를 자아내기 쉽다는 비판적 대안으로 실천과 응용을 강조하며 이용된 실천연구(action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등과 맥을 같이 한다. 참여연구는 이를 다소 수정하여 연구자 입장에서 대상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 자신도 연구대상자로 참여하여 대상자들과 함께 연구하며, 결과 자체가 연구결과일 뿐 아니라 연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사회현상의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김정을 외, 2009).

참여연구법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회교육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의 사무총장 Budd L. Hall 이 협회가 발간하는 정기전문지 『Convergence』 제 8권(1975)에 「참여연구법: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접근방법」이라는 제시하면서 부터였다(정지웅 외, 1995).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방법에 호응하여 지원하였으며, 1976년에 하나의 실제적인 참여 연구가 스웨덴의 인류학자 Swantz에 의하여 탄자니아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된 후 새로운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많은 국제기관들에 관심을 모으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조명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정지웅(1981)에 의해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조명 받아 농어촌지역의 사회교육활동으로서의 여러 연구들이(림영철, 정지웅, 박덕병, 1993; 정지웅, 1981; 박덕병, 1999) 있으며, 최근에는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법(CBPR :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으로 교육과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참여행동연구(PAR :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로 그 명칭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알려지고 있다(Minkler & Wallerstein 2003; McTaggart, Robin 1997). 그러나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존에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연구대상 혹은 연구 참여자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연구문제의 생성과 해결의 과정 모두가 민주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공중보건 분야의 연구법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CBPR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되는 것들 사이, 또는 연구 주체와 연구 객체를 의식적으로 흐리게 하는 접근법이라 소개하고 있다(Green, & Mercer 2001; Minkler & Wallerstein 2003). 또한 McTaggart & Robin (1997)는 참여행동연구(PAR)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아닌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참여자 스스로의 연구이며,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하고자 스스로를 돕는 연구이며, 그들이 타인과 함께 작업하고 타인을 돕는 방법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와 개선을 위해 지식을 갖추어 나가는 주체이자 행위자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방법론의 기원을 넓은 범주의 참여연구법으로 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세부적인 구별을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본다.

2. 참여연구법과 다른 연구법의 비교

기본적으로 참여연구는 질적연구를 지향한다.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관찰, 면접, 설문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어떤 이론이나 지식체계를 지지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누적하여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을 단순히 실험의 도구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발견하는 것에 매우 강한 설명력을 부여하고 지지하여 왔다. 이렇게 연구자와 대상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온 연구는 흔히 학술연구와 정책연구(용역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이 참여연구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면 참여연구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이러한 차이를 연구문제의 추출,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처리라는 세 가지 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정지웅, 1995).

첫째, 연구제목이나 문제를 결정할 때 학술연구에서는 연구자 개인의 흥미와 관점에 따라 결정하고,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행정당국이나 관계기관 및 단체의 필요에 따라 좌우되지만, 참여연구의 경우는 주민들, 즉 연구대상자들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들의 합의에 따라 연구의 소재로 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강서지역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검토하면서 저소득 밀집에 의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잘못된 구조를 찾아내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연구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술연구나 정책연구에서는 모두가 연구전문가나 학자에 의하여 그 연구의 내용이나 도구가 정해지고 적절한 자료가 수집·분석되는데 비하여 참여연구에서는 주민들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된 계획에 따라 전체 연구자들(연구 참여자와 대상자)이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뉘고 서로 일

을 분담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참여연구의 방법이 다소의 주관성에 따라 편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부인의 일반적인 관찰에 의하여 극히 피상적인 자료를 얻기보다는 그 내용이 질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연구의 방법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문제를 도출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구안하고 사업조직을 만들고 수행하며 결과를 정리하여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히 기관들 간의 연계사업을 위한 협업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참여연구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것은 개별 기관들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는 각 기관마다의 고유한 사업영역이 있었으며,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속해 일하는 기관의 실무자, 중간관리자인 참여연구자들의 의지로 제안되고 이를 개별 기관과 지역사회에 이해를 구하며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수행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학술연구의 경우는 연구자의 전공과 관련된 학술지나 학회에서의 발표 또는 단행본 책자로 출판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실제에 활용하여 사회구조를 개선하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학술 활동이 더욱 중요시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정책연구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었던 당국이나 기관이 그 연구결과의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의 발표가 알려저서는 안 될 사항이 많으면 ‘대외비’(對外秘)로 묶어 놓고 숨겨 두며, 반대로 당국이나 기관의 홍보에 유리한 결과이면 그 결과를 출판하여 홍보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참여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학술 발표나 출판, 또는 홍보보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학습자료로 쓰게 하거나 그들을 자극시켜 사회구조와 기능의 현실을 깨닫거나 알게 만들며, 이에 대한 어떤 각오까지도 하게 만들어 그 연구결과를 스스로의 발전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정지웅, 1995).

이와 같은 참여연구법의 특징은 사회적 실천가들(학자와 작업자)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작업이 아닌 엄격한 집단적 성찰의 기초를 제공하는 증거 수집과 계획적 변화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이다. 또한 참여연구에서의 문제제기(problem posing)는 ‘문제를 병리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가치와 계획을 현실세계에서의 작업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 자신에 의한 작업의 문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제화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의 효과로 부터 개선되는 방식을 학습함을 통해 세상을 개선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로 동기화 한다(McTaggart & Robin, 1997).

참여연구법의 이러한 특징을 다른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요약해 <표 II-4>로 확인하면 보다 명확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II-4> 참여연구법과 다른 연구법의 차이

출처 : 정지웅 (1995)

과정	참여연구	다른 연구(학술/정책연구)
누가 문제를 규정하는가	문제를 가진 지역공동체	보통 지역공동체 밖에 사는 연구자
누가 연구방법을 선택하는가	(지역)공동체	외부연구자
사용되는 연구방법	다양(집단협의, 지역사회 세미나, 자유의견 조사법, 대중연극, 시청각 교재제작 등)	주로 개인반응에 의존
누가 자료를 분석·해석하는가	그 문제를 가졌던 지역공동체(공동)	개인 연구자(연구대상 집단의 반응과 별 관계가 없다.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지역공동체가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	연구자, 학자, 정부당국, 사회봉사기관 등에 의해 때로는 지역사회가 활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김정율 관장님 논문 참고문헌

김정율, 권일남(2009). 「청소년 육성 및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모델 연구- [강서푸른이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4). pp73-99. 서울 : 한국청소년학회

립영철, 정지웅, 박덕병(1993). 「서산군 인지면 주민의 참여 개발계획」. 『참여연구 법과 그사례』. 정지웅과 참여연구회원 편. pp62-89. 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정지웅(1995). 『참여연구방법과 그 사례』. 서울 : 서울대학출판부

McTaggart, Robin(1997). "Guiding Principles fo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In McTaggart, Robin. (Eds).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 International Contexts and Consequences*. New York: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pp.25-43.

현장연구 사례와 연구논문 구성의 방법론 고찰

- 참여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겸임교수

김 정 을

1

진행 순서

1

연구내용(사업) 소개 [강서푸른이학교]

2

연구논문의 구성

3

연구논문구성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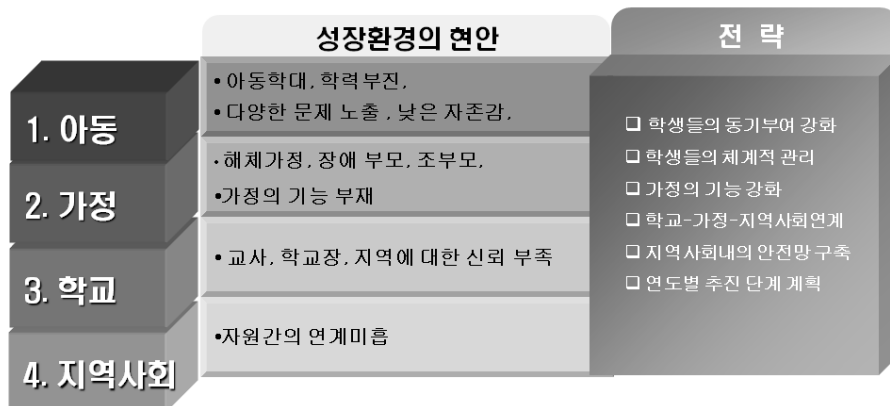
2

연구배경 -강서지역의 복지수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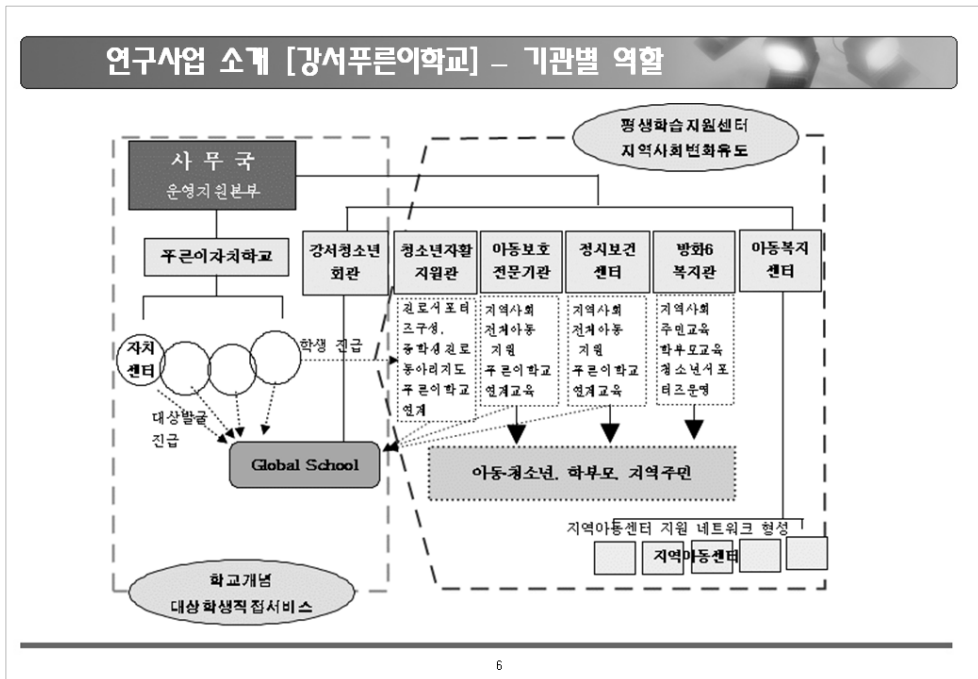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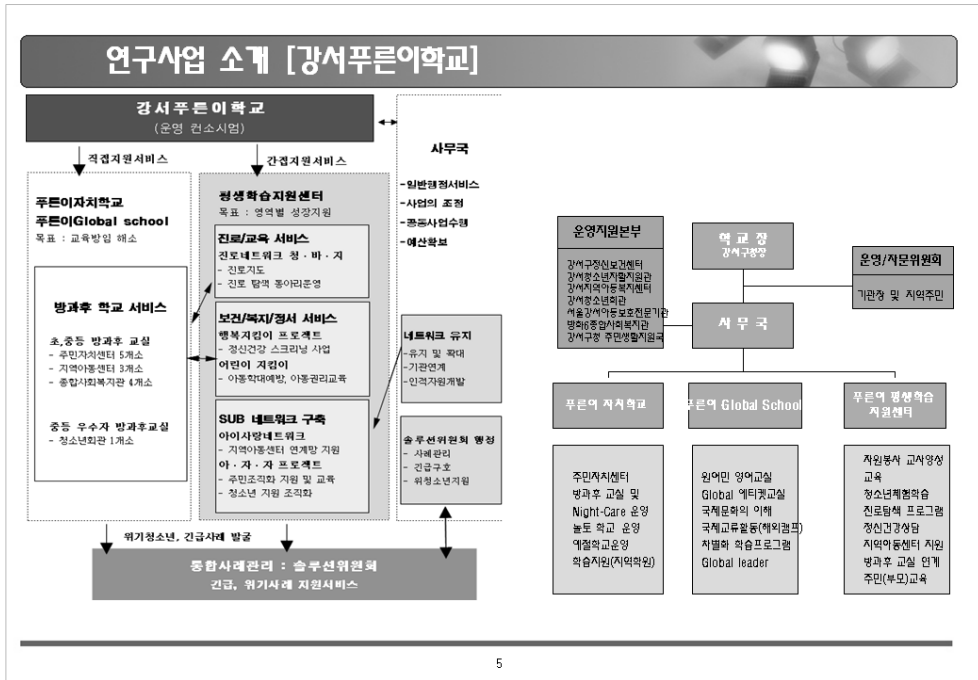
- 인구 3위, 수급자수 2위, 인구비례 1위
- 면적 2위 녹지 60.1%, 상공지역 6%
- 재정지립도 43% 14위, 사회보장비 36% 2위
- 90년대초 갑작스럽게 형성된 저소득지역
- 저소득밀집으로 인한 슬럼화 문제
- 민간역동 미흡과 지역기관의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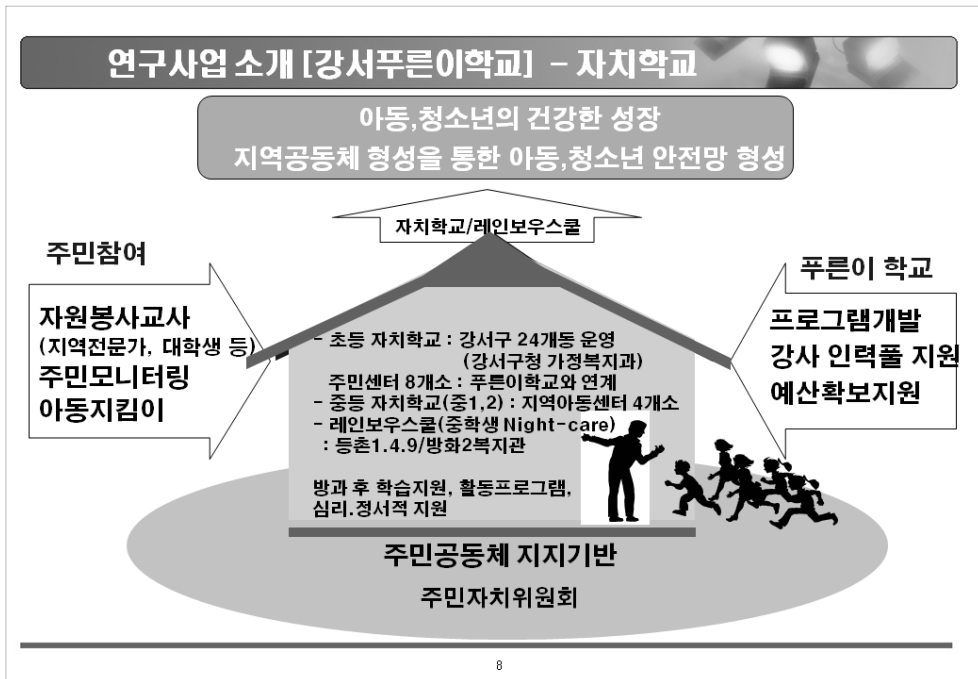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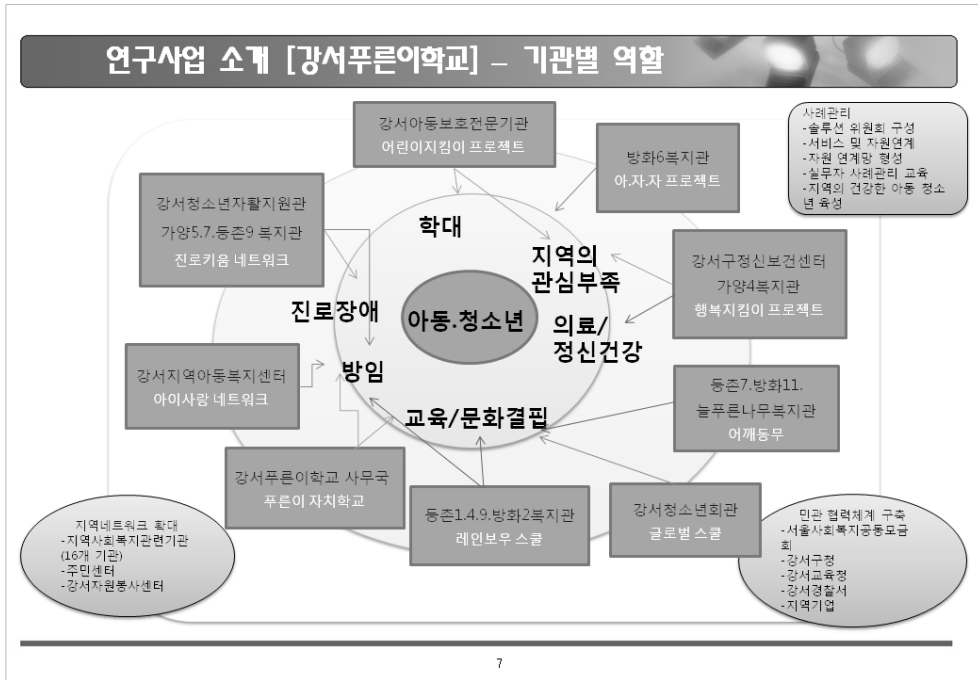
3

연구배경-성장환경현황



4






연구사업 소개 [강서푸른이학교] - 글로벌스쿨


개요 : 지역우수학생에 대한 차별화 된 성장지원

대상 : 중학교 1,2학년 40명
 우선순위 : 학교 및 사회복지진담공무원 추천
 운영장소 : 강서청소년회관

글로벌 리더



원어민 영어교실(연120시간)
학습지원(수학, 논술 각 연 120시간)
예능·체육교실(각 월4회)
자원봉사(연4회)
국제문화 체험교실(연30시간)
방학캠프(5박6일)



지역 엘리트 양성

9

연구사업 소개 [강서푸른이학교] - 평생학습지원센터

솔루션위원회(통합사례관리)
- 강서푸른이학교 사무국

어깨동무 프로젝트
- 등촌7. 방화11. 늘푸른나무복지관


행복지킴이 프로젝트
- 강서구청정보건강센터/가양4복지관

어린이지킴이 프로젝트
-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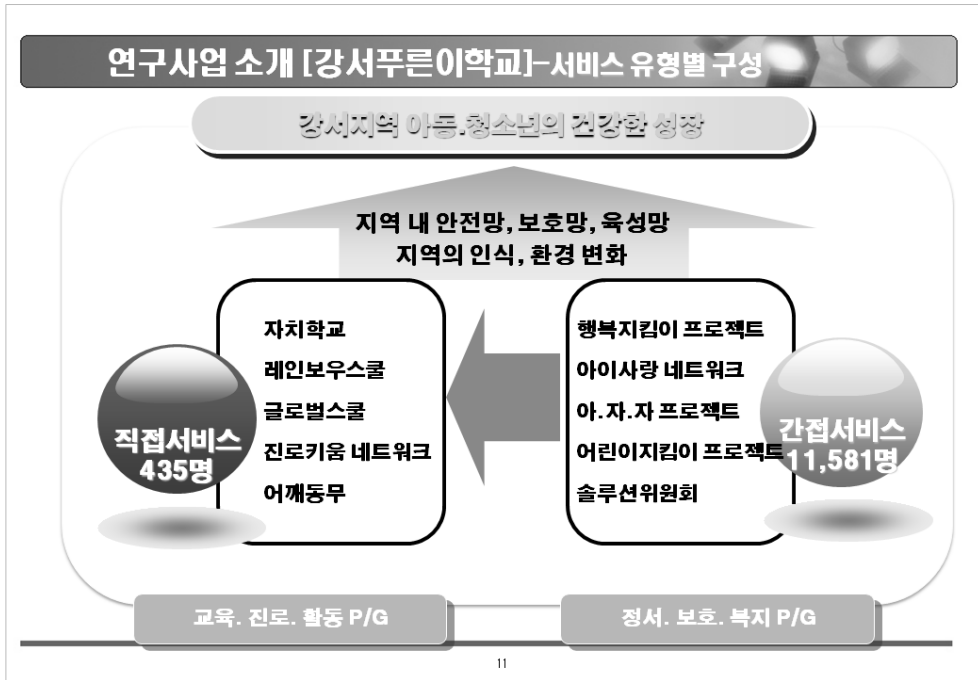
아이사랑 네트워크
- 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

아.자.자 프로젝트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진로키움 네트워크
-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가양5.7. 등촌9복지관



10



2

연구논문의 구성

12

연구 목적

지역 청소년의 성장환경에 개별적으로 작용하던 지역사회 기관간의 네트워크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내부자의 시선(emic)으로 분석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구축한 Community Impact 시범사업 [강서푸른이학교]의 형성과 상호작용구조를 파악하고 성과를 고찰한다.

네트워크 사업의 성과와 지속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하고 네트워크 정착 과정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13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대상

연구사업 구축과정, 실행, 평가내용

참여연구자인식, 네트워크 양상변화

연구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 강서구

시간적 범위 : 2006.3.~2009.9

14

연구방법과 절차

문헌연구

이론적 배경

지역사회와 청소년 성장환경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사업구안에 사용된 Logic model 기법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연구법

15

연구방법과 절차

내용분석

문서분석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공문, 회의자료 등

맥락에 따른 분류

순서에 따른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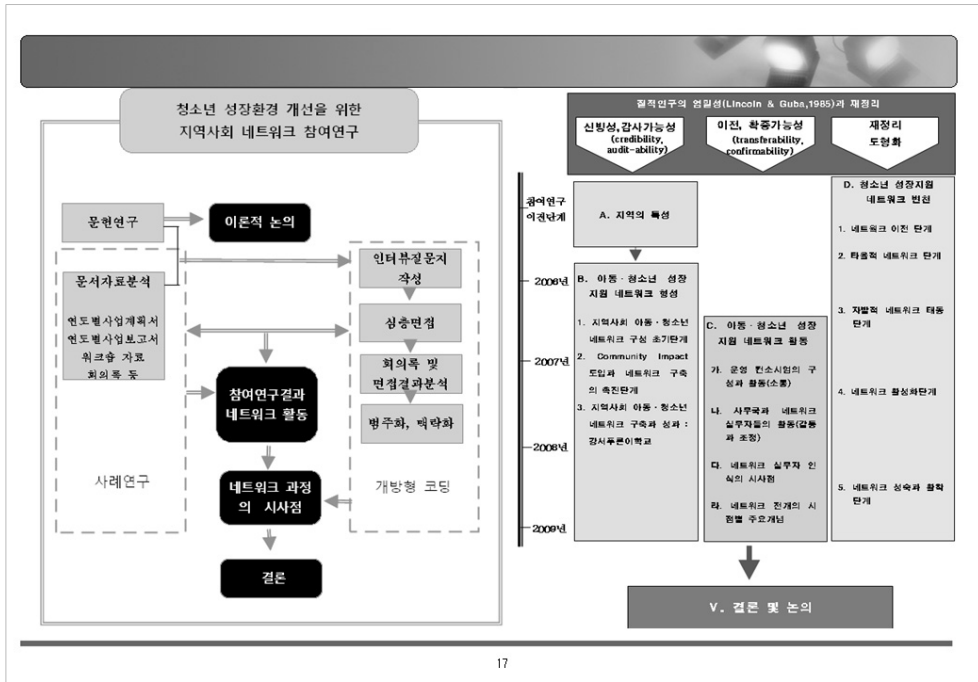
사례기술
 과정분석
 의미분석

질적 인터뷰

개방형 질문지
 포커스그룹 인터뷰

NVIVO 활용 질적분석
 네트워크 인식변화와 참여과정 분석
 개방형코딩 → 범주화 →
 패러다임 모형화

16



17

연구결과-참여연구자의 네트워크 인식분석

범주	하위범주	주요개념
네트워크 성공요인	기관장의중요성	기관장변화중요, 기관장의 결심이 있으니까, 기관장 의지를 알아야
	참여를 통한 기관 성장	기관의 이익,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의 성장
	비전의 공유 중요	공동의 비전수립, 네트워크 미래생각, 아동 청소년 중심사고
	소통의 중요성	회의와 토론의 중요성, 실무자교류, 서로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존중,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연대가 가능, 용어를 정확히 하자
	조직의 이해	다른 직원에게 미안, 무장 눈치 봄, 평가때 빠지기 어려워, 외근이 너무 많다
	지역의 이해	지역을 알게 되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도 여기 사는데 잘 몰랐던 부분이 많다, 강서만큼 기관 많은 곳 없다.
	민간의 역량	교육복지 경험, 교육복지 효과, 실무지역량이 됨, 아무래도 해봤으니

분석 : QRS Nvivo 8 coding Tree Node

18

연구결과-참여연구자의 네트워크 인식분석

범 주	하위범주	주요개념
네트워크 어려움	기관장의 중요성 기관의 이해부족	공모사업 같은 습성, 예산부터 생각, 참여하기 쉬운 구조로 사업계획, 계속성의 어려움, 개별기관의 내부사정우선
	관에 대한불신	아이들이 동원되었다는 느낌, 통제하려고한다. 자기를 성과로 생각한다, 뒷사람 눈치, 인원수가 더 중요, 낙인감 준다, 동상이몽(同床異夢)
	위탁기관의 문제	바뀌면 사업이 계속 될까, 우리도 모름에야 됨 구청눈치 안 볼 수 없다.
	실무자 업무가중	기관업무도 벽차다, 이해 받지 못함, 소모적인회의, 업무집중에 대해 안 없음, 기관 이해부족, 기관장 눈치보여
	기관의 이기심	예산배분의 공평성 생각, 예산 안주면 못한다, 자기기관 성과로 한다, 목적의전도,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통의 어려움	기관 네트워크의 어렵다, 말이 안 통한다. 기관장을 만달라, 사무국에서 찾아가겠다. 별성과 없이 수시로 모이고, 합의과정의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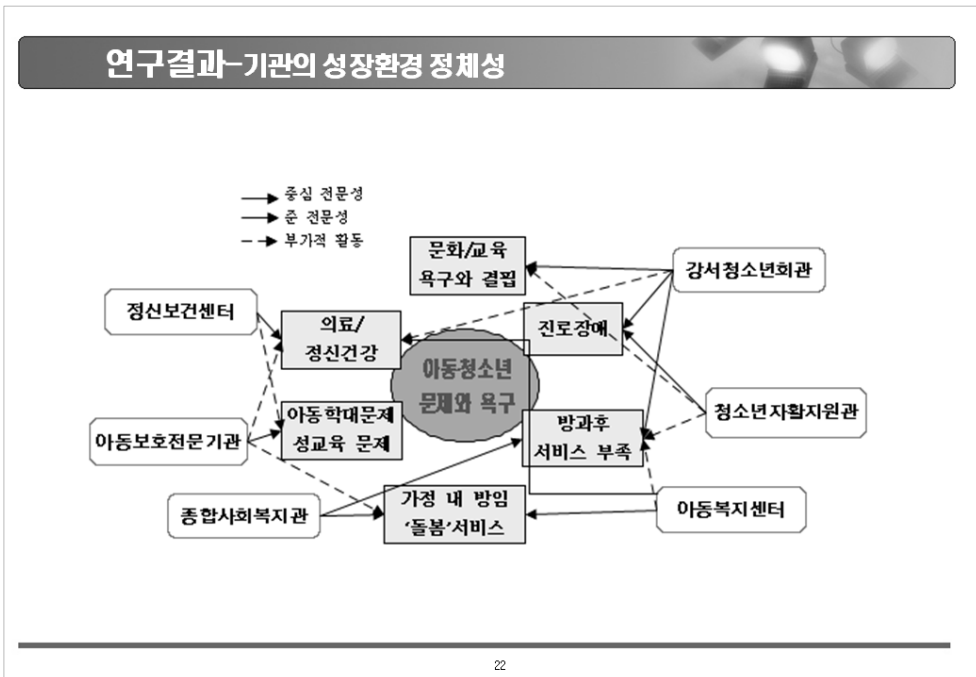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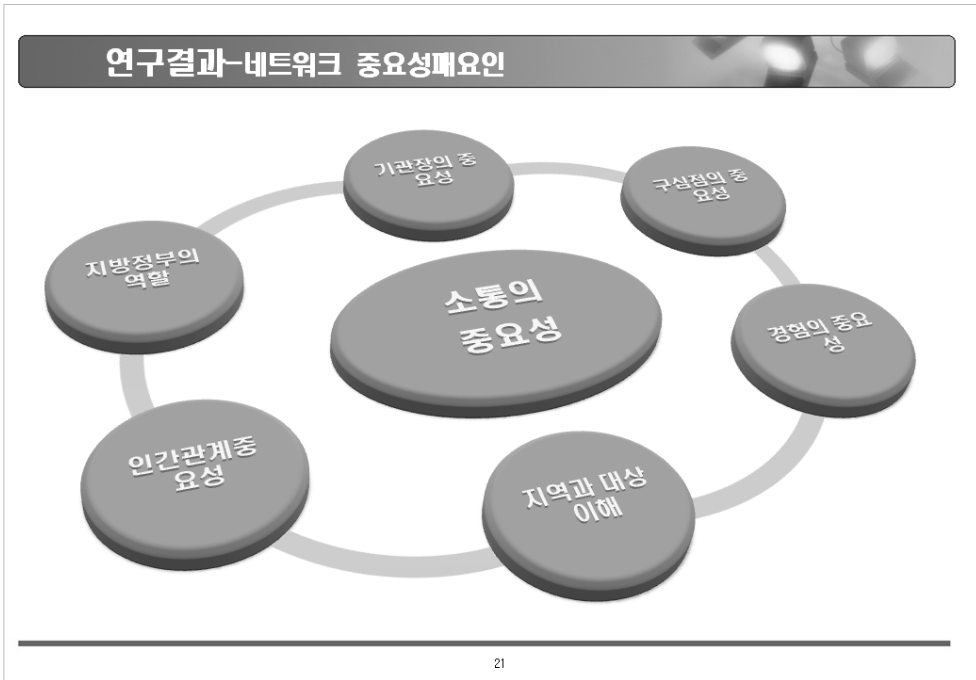
분석 : QRS Nvivo 8 coding Tree N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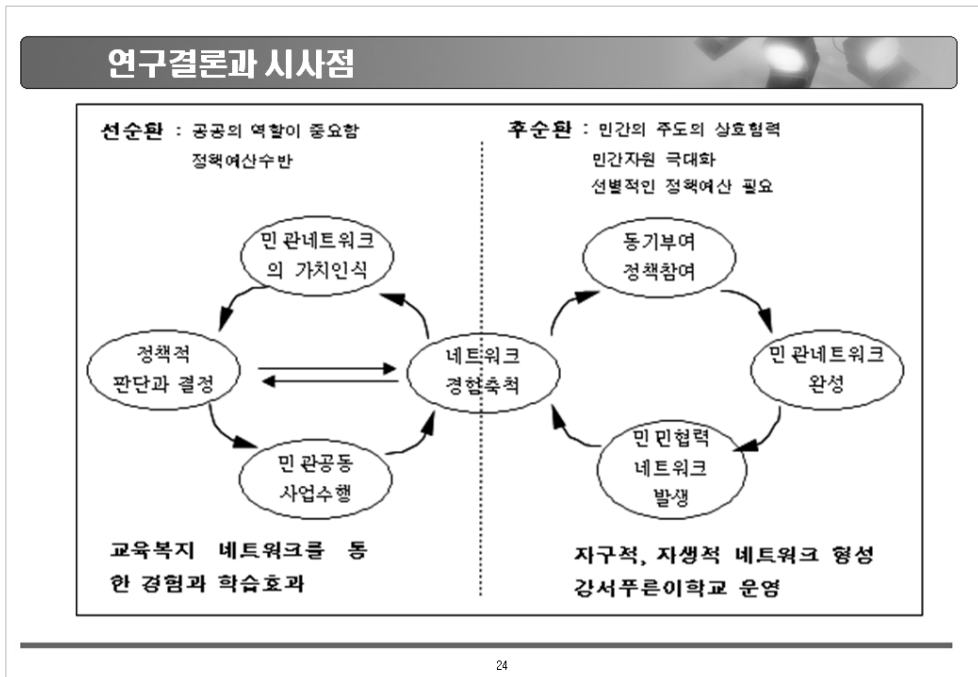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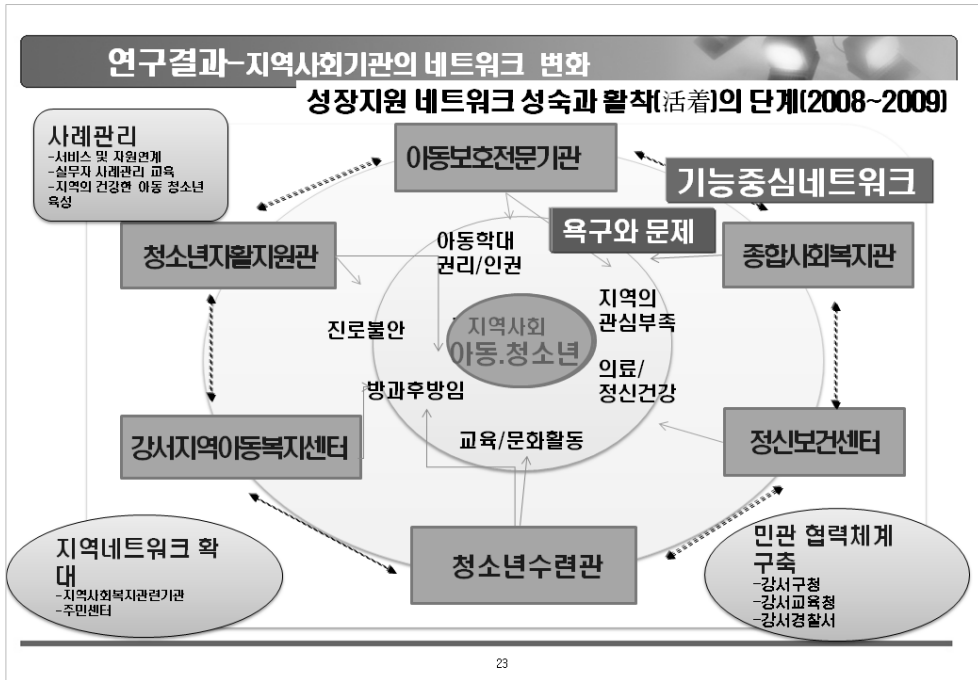
19

연구결과-참여연구자의 네트워크 인식분석

범 주	하위범주	주요개념
소통의 중요성	기관장의중요성	기관장변화중요, 기관장의 결심이 있으면, 기관장 의 지를 알아야
	구심점의 중요성	기관의 이익, 네트워크를 통한 기관의 성장
	경험의 중요성	공동의 비전수립, 네트워크 미래생각, 아동 청소년 중심 사고
	지역과 대상의 이해	회의와 토론의 중요성, 실무자교류, 서로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존중,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연대가 가능, 용어를 정확히 하자
	인간관계의 중요성	다른 직원에게 미안, 부장 눈치 봄, 평가때 빠지기 어려 워, 외근이 너무 많다
	지방정부의 중요성	지역을 알게 되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 나도 여기 사는데 잘 몰랐던 부분이 많다, 감사만큼 기관 많은 곳 없다.
	민간의 역량	교육복지 경험, 교육복지 효과, 실무지역량이 됨, 아무래 도 해봤으니

20





3

현장연구의 딜레마

25

연구논문 구성의 어려움-학술적차원

- **방법론 전통의 파격**
사업보고서? 연구논문?
연구인가? 사업인가?
전례가 없음 문제 - 선행연구
- **연구윤리의 문제**
외적차원 - 개인적 학위연구로 옳으나
내적차원 - 미화, 비약
개인적 차원 - 연구냐, 일이나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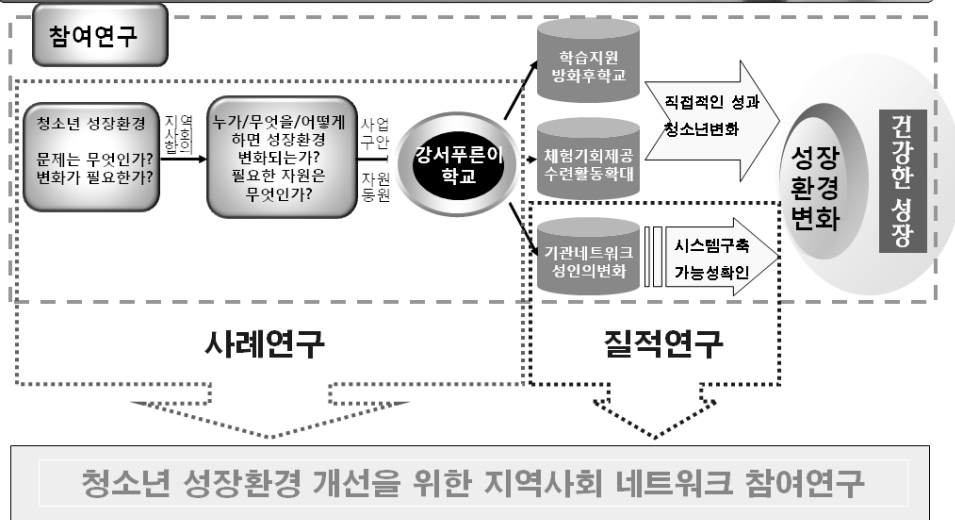
연구논문 구성의 어려움-내용구성차원

- 연구시점, 관점 설정의 어려움
 - 언제 연구를 끝낼 것인가? 끝이 있는가?
 - 참여연구의 어느 부분을 다룰 것인가?
 - 연구대상은 누구인가?

- 연구문제의 부조화
 - 참여연구의 연구문제
 - 궁극적 목적 - ①성장환경을 개선하고, ②지역사회를 변화의 시키며, ③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였음을 확인 것
 - 연구논문의 연구문제
 - 사례보고, 성장지원 네트워크 변화과정, 네트워크 구축의 실무 작 방법론의 확인

27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28

참여연구를 통한 연구논문구성의 선결조건

- 무엇을 분석 할 것인가? - 연구문제부조화
- 어떻게 분석 할 것인가? - 시점, 관점 문제
-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 외부적 권위와 함께
- 다양한 관점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방법론 측면에서 참여연구법은 질적연구를 중시하며, 실천성을 강조하고, 인본주의와 민주성을 강조하는 연구법이다. 그리고 기존의 계량연구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참여연구는 연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따라서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연구법은 연구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연구 태도(orientation)라는 측면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정민수 외, 2008; Minkler, Wallerstein, 2003; Ahmed et al, 2004).

29

감사합니다.

30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 청소년시설, 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

정관 · 임원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청소년활동학회(The Korean Youth Activit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 거쳐 승인을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을 전공한 자나 교육학, 사회학, 복지, 상담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초·중·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이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복지시설, 상담,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자.

제6조(자격) 본 학회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로 청소년현장 경력 3년이상인 자.
2. 준회원은 학사학위 취득한자 또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자.
2. 학생회원은 학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청소년관련 제반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인
3. 부회장 3인
4. 이사 약간명
5. 감사 2인

제11조(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제13조(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의 최초임기는 2년, 3년으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임
3.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의결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결의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회칙에 정한 이사회의 의무
4. 기타사항

제18조(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서 유급 사무총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1.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기획위원회: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
 - ②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상의 기획 및 운영
 - ③ 연구위원회: 학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기획·운영과 학회 내 연구소모임 운영 지원
 - ④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 ⑤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및 회원의 연구에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회비)

1. 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정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2. 준회원,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2만원3. 평생회비는 30만원4.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10만원5. 입회비는 2만원 |
|--|

제6장 학술

제23조(학술지) 1.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청소년활동연구(The Journal of Youth Activity)”로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는 년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한다.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청소년활동연구 간행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학술회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임원

번호	직책	성명	소속
1	부회장	김영호	백석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2		김영득	은평청소년수련관
3		류명규	화성유엔아이관장
4	이사	강월배	순천시청소년수련원
5		김차희	전통연구발전협의회
6		박호문	대구과학대학
7		신흥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8		조달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9	기획위원장	김종국	송파청소년수련관
10	학술위원장	정건희	청소년자치사무소
11	연구위원장	이채식	대구한의대학교
12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장	전명호	백석문화대학교
13	윤리위원장	이창식	한서대학교
14	편집위원장	김정률	광진청소년수련관
15	사무총장	김태균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2013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인쇄일 2013년 11월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권 일 남
발행처 한국청소년활동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인쇄처 형우디앤피
TEL. 02) 2263-3887
